

“당 고뇌에 찬 결단...광주 바뀌 정권교체 초석 되겠다”

새정치연합 광주시장 후보 윤장현

“姜·李 경쟁력 높아 힘든 싸움 진정성과 대안으로 선거 치를 것”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일 광주시장 후보로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 전락공천했다.

윤 전 위원장은 중앙당의 전략공천 발표 뒤 광주지역 원로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 등 조심스런 정당 후보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장 후보로서 “시민의 힘을 광주를 바꿔 정권교체의 초석이 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7일 오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 일답.

-중앙당의 전략공천에 대한 의미는?

▲당이 얼마나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는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광주의 바람과 지방 선거의 승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 광주지역 원로와 종교 지도자들이 다는 판단과 당헌의 규정에 따른 결단이라고 본다. 그리고, 전략공천과 전략적 공천을 혼돈 안했으면 좋겠다. 전략공천은 김영삼·김대중 정부때도 젊은 피, 소외된 약자를 대변하는 통로로 정치의 희망을 갖는 구조였다.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도 상당하다.

▲전략공천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공천 방식에 대해 지역의 분열을 원하지 않고 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고 밝혔고, 어떤 경선 방식이라도 중앙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당이 어렵게 결정을 내린 만큼 앞으로 시민들을 만나며 당의 어려운 결단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나갈 것이다.

-전략공천이 시민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선거의 확장성, 선거 승리, 개혁적인 인물 공천 등의 명분에도 개혁적 방법이 진입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다. 광주에 개혁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개혁적 인물이 진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이 전략공천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시민들이 이후 선거과정에서 의견을 내실 것으로 본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단일화 논의도 있다.

▲두 분의 경쟁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그동안 (저도)광주의 대변화를 위해 많이 준비해왔다.

이제 정당의 시장 후보가 된 만큼 진정성과 정책 대안으로 시민들을 찾아 나갈 것이다. 광주시민들도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힘든 싸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을 줄 믿는다. 새시대는 새



시대는 시민의 선택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리더십으로 열어야 한다.

-선거가 처음이다. 어떻게 선거를 치를 계획인가.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하고, 결정해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시대의 요구이자 광주시민의 열망이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시민들의 많은 소리를 들을 것이다.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러 시민의 선택에 걸맞은 시민만을 위한 첫 ‘시민 시장’이 되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성공천 이행하라” 유승희 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들이 6일 국회 정관관에서 여성공천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심야의 정치테러”... 전략공천 후폭풍

강운태·이용섭 탈당계 제출

시민단체 반발 지역사회 슬렁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 후폭풍이 거세다.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은 전략공천 선언 직후인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심야의 정치테러” “낙하산 공천·밀실공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강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후보 경선을 무시한 채 밀실야합 공천을 강행했다”며 “민주의 성지 광주를 모독한 반시민·반민주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 대표는 통합을 빌미로 광주시민을 기만했고, 안 대표는 새 정치를 빌미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참여자치21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안철수 대표

는 새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정경선 수호 시민연대’도 “시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심야 밀실에서 결정한 ‘낙하산공천’을 광주시민의 힘으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6일에는 강 시장과 이 의원 지지자 250여명이 집단 탈당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당을 떠나 광주정신을 지키고 광주시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걸고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공천된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윤 전 위원장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사죄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은 이날 자료를 내고 “방장하신 지선 큰스님은 윤 후보를 지지한 일도 없고 지지할 의사가 없다”며 “윤 후보는 깊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姜-李 단일화 움직임 광주시장 선거 새국면

양자대결 댄 접전 이뤄질 듯

윤·강·이 3자대결 배제 못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에 맞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은 낙하산·밀실공천이라고 비판하고 탈당하면서 무소속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강 시장은 무소속 후보 단일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세력, 시민 후보가 이기는 길이라면 단일화를 포함해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시민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단일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시가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행보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략공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들의 단일화는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관심거리가 될 전망이다.

◇단일화 작업 어떻게 되나=경선을 앞두고 그동안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던 두 후보 측이 전략공천을 지지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또 다시 후보 단일화를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과 이 의원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단일화 협상에는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서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급적 ‘단일화’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후보 모두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후보 등록일(15~16일)이 첫 D-데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 의원이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 등록일까지 의원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가 주목된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 의원이 사직생각의 각오로 후보 등록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 의원이 후보 등록을 통한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칠 경우 단일화 논의는 5월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강 시장은 중앙당의 전략공천 발표 뒤 무소속인 이병완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전 실장까지 단일화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강 시장은 7일 예비등록과 함께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3자 대결 가능성 배제 못해=두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윤장현-강운태-이용섭’간 3자 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자 대결구도에서는 조직력을 가진 새정치민주연합 윤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게 지역정치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기에 전략공천 이전,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지역 국회의원 5명이 합세할 경우 3자 대결은 무소속 후보들에게 ‘필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3자 대결’도 박빙의 싸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윤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음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전략공천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이 무소속 후보로 선거에 참여할 경우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강 시장 측의 경우 현역 시장이라는 점에서 조직력을 풀기 어려울 경우 30% 초반 대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측 또한 그동안 경선과정에서 결집해온 조직과 ‘의원직 사퇴’라는 카드를 꺼내들 경우 표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5월 2일~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출발!!

터키 일주 9일 **2,590,000~**
그리스, 터키 9일 **2,890,000~**
이stanbul, 스페인, 포르투갈 9일 **2,890,000~**
이stanbul, 발칸 9일 **3,190,000~**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W420,000/4월기준), 기사&가이드(90유로), 상급차

여름방학 무안출발 → 다량 전세기 (VN항공)총6회

관광	다량.호이안.후회	준특급	899,000~
		특급	1,099,000~
유양	다량/호이안 (호핑투어)노팁.노음선	준특급	1,299,000~
		특급	1,499,000~

※불포함사항 : 여권및 개인경비, 유류할증료(130,000원)/기사, 가이드(1명당408)

아시아나항공으로 떠나는 북경 태항산

ALL포함 북경 태항산 5일 **1,050,000**

5/3일 단 하루!!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대만여행

대만 3박4일 **1,230,000**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 발사치(830/30분), 101빌딩 전망대(835)

카멜리아로 떠나는 일본 히타 조이펜션 온천 여행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빌리지로 GO, GO!!

강추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펜션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출발일 : 5/5, 5/10, 5/12, 5/17, 5/18
	카멜리아	299,000	※불포함 사항 : 여권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가족단위 8명이상 단독행사 가능 (별장 1동씩 드립니다), 주말(목,금요일은 요금인상됩니다)
강추	선착순 20명!	히타 특급 전통 료칸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출발일 5/5, 5/10, 5/12, 5/17, 5/18
	카멜리아	399,000	※불포함 사항 : 여권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항공	선착순 20명!	일본고급 료칸및 특급호텔숙박!! 큐슈 3박4일	출발일 5/5, 5/10, 5/12, 5/17, 5/18
	카멜리아	599,000~	※불포함 사항 : 국내수송, 유류세, 기사&가이드
항공	선착순 20명!	특급호텔숙박!! 오사카, 교토, 나라 3박4일	출발일 5/5, 5/10, 5/12, 5/17, 5/18
	카멜리아	799,000~	※불포함 사항 : 국내수송, 유류세, 기사&가이드

2014 제주 특별자치도 관광협회장배 친선골프대회!!

일시 2014년 6월 18일(수) 13:00~ 참가비 **325,000원** 그린피36홀 + 골프텔 22평 1박(2인1실)

※포함사항 : 항공료, 그린피 36홀, 골프텔22평(1박, 2인실), 조식 ※불포함사항 : 카트비, 캐디비, 중식, 석식, 현지교통비

장소 : 스프링메일 골프&리조트(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경기방식 및 진행 : 신메리오 / 샷진
대상 : 국내 및 해외 골프동호인 시 상 : 우승, 메달리스트,준우승,최다상,근접상,행운상
인원 : 160여명(내외 68, 도외 72, 해외 20)

무안-장가계 전세기 3/28~5/30일 [월/금 출발]

실속	장가계/천문산 4일	899,000
충격	장가계/천문산 4일	989,000
실속	장가계/천문산 5일	949,000
충격	장가계/천문산 5일	1,039,000

※불포함사항 : 중국단체비(₩33,000), 유류세(₩100,000), 기사&가이드

무안-게임 힐링투어!! 4/9~6/4, 총 17회 매주 수, 토 출발

끝없이 펼쳐지는 산수 절경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게임!!

캐주얼	게임/양삭 4일	599,000~
클래식	게임/양삭 4일	949,000~
캐주얼	게임/양삭 5일	649,000~
클래식	게임/양삭 5일	999,000~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949,000/4월기준), 기사&가이드, 중국단체비(₩35,000)

국내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69,000~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59,000~

※불포함 : 기사&가이드(₩10,000), 현지교통비, 자유도시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20,000~**
※불포함 : 항공(한국기준)
홍도,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협정이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2003-1호] ※ 상품가격은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별 기차/항공요금, 1인용, 국내상품 5만원(단체), 관광진흥기금(기금), 공항 및 주차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신철, 전철/버스 / 전지역 ※ 인기 도구는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여행 및 숙박업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152-2222)로 문의주세요.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여행일 중, 기사/가이드 불참, 선택관광, 각종 비자발행 등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용에 따라 다름